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 MBC 본부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3면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Media, Connected Everywhere)'라는 주제로 진행된 KOBA 2018은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의 정보통신 기술(CT)이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5면

논란은 지속돼 왔으나 업계에서 그 누구도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르면 내달 1일부터 휴일을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까지 만 일을 시킬 수 있는 개정 근거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6면



The Korea Broadcasting Engineers & Technicians Association

방송기술저널

264호

2018년 6월 13일(수)

방송기술의 꽃 '개표 방송' 이번엔 어떤 볼거리가? KBS·MBC·SBS 등 지상파 '최소 인력으로 최대 효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치열한 경쟁에 들어갔다. 선거 개표 방송은 '방송기술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최첨단 기술들이 동원된다. 제19대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지상파 3사가 공동 출구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방송사가 어떤 기술을 활용에 특색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선거 전날인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상 첫 만남인 북미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KBS와 SBS는 각각 40여 명, MBC는 30여 명의 인력을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파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먼저 '우리의 미래'라는 슬로건을 내건 KBS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 보도 자문단을 구성해 선거 방송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송종길 경기대 교수, 김경수 변호사, 문은철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회장, 김준석 한국리서치 본부장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선거 보도와 여론조사, 관련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보도 검증 역할을 맡았다. KBS는 2002년부터 가동해온 자체 당선 예측 시스템 '디시전K'를 통해 개표 상황을 전한다. KBS 관계자는 "디시전K의 기능이 과거보다 항상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선 '율력' '확실' '확정'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개표 방송은 별도의 스튜디오 'K 포럼'을 마련해 지역별 개표 상황을 분석하는 계획이다. 진행은 임경철 앵커, 김지원 아나운서, 이각경 아나운서가 맡는다. 개표 방송 전 배우 이이경이 출연한 미니 웹드라마 3편을 차례로 공개한 MBC는 이번 개표 방송에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MBC는 '국민의 심부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대선 때 가동한 자체 선거 결과 예측 시스템인 '스페셜M'을 '적중 2018'로 이름을 바꿔 선보인다. '적중 2018' 이름을 바꾼 예측 시스템은 더욱 업그레이드된 분석 능력으로 개표 초반부터 구체적인 수치로 당선 확

률을 계산해 시청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실시간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데이터, 지역 및 연령별 성향, 그리고 MBC만의 선거 방송 노하우를 결합해 당선 확률을 신속하게 산출하는 '적중 2018'은 지난 3월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개표 방송의 재미를 더할 요소들도 준비돼 있다. 선거 방송 사상 최초로 도입되는 '말하는 후보자 포맷'은 실시간 개표 상황에 따라 주요 후보자들이 육성으로 자신의 심정을 직접 표현한다. 또 MBC의 상징인 조각상 '미러맨'이 선거 방송의 마스코트로 변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진도 화려하다. MBC는 유시민 작가와 전원택 변호사, 그리고 DJ 배철수가 개표 방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 당일 '배철수의 선거캠프'라는 코너를 통해 시청자와 만난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논객인 전원택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개표 방송에서 차별화된 분석과 친절한 해설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화려한 기술로 화제의 중심에 선 SBS

는 '2018 국민의 선택' 스튜디오와 그래픽 '프리즘'을 기본 콘셉트로 내세웠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방송으로 '제5회 휴스턴 국제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SBS의 방송은 관련 업계의 큰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SBS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 당시 미국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원좌의 게임'으로 후보별 득표 상황을 전한 데 이어 인기 게임 '포켓몬고'를 패러디한 '투표몬고' 등을 선보여 개표 방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SBS는 이번에도 '선거 방송의 평가를 만든 주역인 그래픽 표출 시스템 '바이폰(Vote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 방송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시킨 증강현실(AR) 바이폰, 주요 격전지의 실시간 캠프 상황에 실시간 데이터를 입히는 중계 바이폰이 처음으로 소개된다. 또 <왕좌의 게임>을 잇는 명작 스토리 바이폰, 전국 시도지사 후보 70여 명이 총출동하는 깜짝 바이폰도 준비돼 있다. 진행은 김성준, 박선영,

김용태, 최혜림 앵커가 맡는다. 김우식 SBS 선거방송기획팀 팀장은 "작년 대선보다 바이폰을 30% 정도 늘려 역대 가장 많은 수의 바이폰을 제작했다"며 "참신한 바이폰이 투표-예측-개표 단계마다 대거 쏟아지니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블랙하우스>의 질문 특보 강유미가 주요 후보들을 만나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강유미가 간다'와 같은 토크 코너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현역 역사 선생님이 지방선거의 역사와 의미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지방선거의 역사' 등 다양한 콘텐트가 준비돼 있다. 선거 유클이 드러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나와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심층 분석 코너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 등의 이슈가 선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코너도 방송한다. 김 팀장은 "6.12 북미정상회담 때문에 1만, 2만을 마련하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선거 방송의 명가 SBS'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코앞'...방송사 근무 환경 달라질까? 언론노조 SBS본부 "사람 잡는 '살인 노동' 이제는 바꾸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도 노사 간 근무시간 단축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6월 12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장에서 KBS·MBC·SBS·EBS 등 지상파 4사 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별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사측을 대표해 양승동 KBS 사장, 최승호

MBC 사장, 박정훈 SBS 사장, 장해랑 EBS 사장이 참석했으며, 노조 측 교섭 대표로는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경호 KBS본부장, 김연국 MBC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유규오 EBS본부장이 참석했다.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은 오는 2020년 이후 적용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조사한 '지상파 방송 산업 노동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종사자 5명 중 1명은 주 52시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6월 7일 발행한 노보에 영상제작팀, 영상편집팀, 편집부, 드라마본부, 보도본부 등 조합원 6명의 노동 실태를 폭로하는 인터뷰를 담았다. SBS 노조는 "그동안 '소수정예'라고 자부해왔지만 허울

좋은 말에 가려진 건 '살인적인 노동'이라는 처참한 현실이었다"며 "최근 수년 새 특정 팀에서만 암 환자가 여럿 나오다가 하면, 일부 실태가 알려진 것처럼 하루 최장 20시간에 이르는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좋은 방송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린다"며 "노조는 현행 제작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극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원칙적 적용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손실 최소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의 틈을 노린 '공짜 노동' 방지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노력을 다할 때 작은 희망이라도 견져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는 그동안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돼야 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근무시간을 주 68시간(주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휴일 노동 1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돼야 한다. 언론노조는 "안정적인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정착과 공정방송 확립, 그리고 지상파 진흥을 위한 방송사 노사 간 소규모 산별 공

동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송공성정분과, 제작환경개선분과, 방송산업진흥분과 등으로 나뉜 6월 19일부터 매주 분과별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 사장단은 산별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는 9월 방송의 날 전후로 산별 협약을 맺을 것이라고 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공정 방송의 제도화, 시대적 요구인 비정규직 개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대응하자"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최승호 MBC 사장은 "87년 6월 항쟁 후 노조가 만들어 졌지만 이처럼 노사가 같이 앉아본 적은 없다"며 노사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정훈 SBS 사장은 "노사가 지혜를 모아 지상파가 다시 우뚝 설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전했다. 장해랑 EBS 사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근로조건은 각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오늘 정치적으로 중요한 날이지만 언론노조로서도 정말 중요한 날"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방송 공정성 등 지상파 4사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밀도 있게 논의해 8월까지 결론을 내보자"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프레스센터 언론계 환수 위한 서명운동 시작

기자·신문협회 등 언론단체 “프레스센터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6월 6일 성명을 통해 한국프레스센터의 언론계 환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이하 프레스센터)는 1982년 4월 6일 착공해 1985년 1월 완공한 뒤 같은 해 4월 6일 개관한 건물이다.

프레스센터 건물은 1980년대 초반 언론계 공동자산인 (사)신문회관의 전 자산과 건물 내 함께 위치했던 서울신문의 자산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당시 신축 건물 설립을 위한 자금 충당을 위해 신설 법인으로 정부 자금을 관리하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구 한국방송광고공사, 이하 코바코)의 공익 자금이 투입됐다. 언론단체들은 “현 프레스센터의 위치는 15개 언론단체가 함께 운영하던 (사)신문회관 자리인데 1984년 프레스센터가 완공되자 5공 정권이 언론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설 소유권을 코바코 앞으로 등기하도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명목상의 소유권자에 머물던 코바코가 프레스센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언론단체들은 “2014년 코바코는 언론계의 대리인 격으로서 시설 건립 후 30년간 프레스센터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던 (사)한국언론진흥재단에 ‘더 이상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2016년부터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프레스센터의 설립 취지, 언론계 소유 옛 신문회관에서 시작된 시설의 역사성, 건물이 갖는 공적 시설로서의 지위 등을 살필 때 마땅히 언론계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과거 여러 정권의 거듭된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문제의 해결이 지연되더니 결국 산하기관 간 소유권 다툼으로 소송이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올해 초부터 프레스센터 분쟁과 관련해 부처 간 정책 협의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는 듯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2009년부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마련한 조정안대로 △프레스센터와 남한강연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방송회관과 광고문화회관은 방통위가 각각 관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YTN 사추위 구성안 발표

노조 “불순한 의도 없이 벌어질 수 없는 일” 강력 반발

최남수 전 YTN 사장 사퇴로 큰 진통을 겪은 YTN이 신임 사장 후보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 노조)가 사추위가 발표한 사추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YTN이 6월 4일 이사회를 열고 의결한 사추위 구성안은 △주주사 추천 3명 △회사구성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명 △시청자의 견을 반영할 수 있는 1명 등 총 5명이었다. YTN 노조는 사추위 구성 위원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사추위의 영향력이 큰 구조라고 꼬집었다. YTN 노조는 6월 5일 “이사회는 방송노조를 포함시킨 사추위 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사실상 사추위 추천권을 쥐고 있는 시청자위원회까지 끌어들여 힘을 실었다”며 “시청자위원 대부분이 최고 결정권자인 김호성 상무

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시청자위원 가운데 선임된 사추위원이 시청자와 구성원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YTN 노조 관계자는 “회사 규정을 보면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구성원 과반을 넘은 언론노조 YTN지부가 있다. 만약 구성원 대표가 복수로 필요하다면 방송노동조합(100여 명)이 아닌 차순위 규모 단체인 기자협회(260여 명)가 들어가야 옳다”고 말했다. YTN 노조는 “노조는 영원불멸하지 않고, 가입자 수에 따라 대표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추위의 의도대로 노조 두 곳이 사추위원 추천권을 나눠 갖게 하려면 기준을 명시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이사회는 노동조합의 인원수나 교섭권, 대표성 등을 따지지 않고 설립된 지 닷 달 된 노조에 사추위원 추천권을 배분했다”고 비판했다. YTN 노조는 “회사가 만든 사추위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30일 내 사추위 구성을 못 하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김호성 상



무를 비롯한 현 경영진은 더 이상 YTN의 새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해선 안 된다”며 “노조는 향후 ‘공정한 새 사장 선임과 YTN 바로 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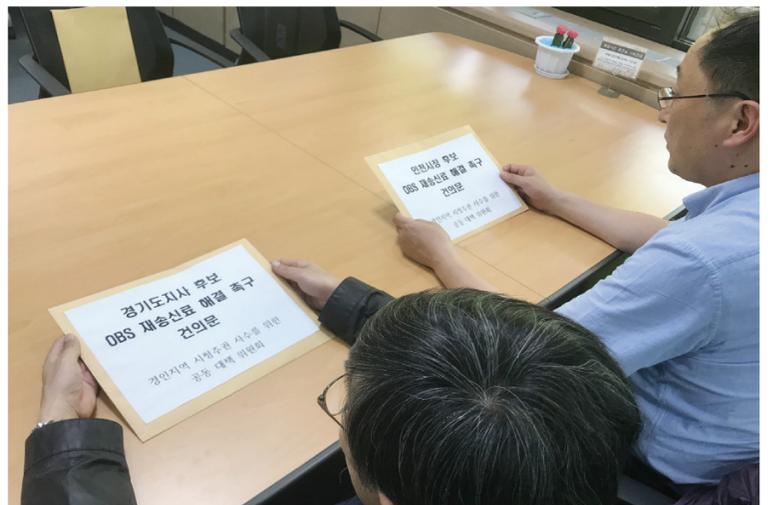
인천시장·경기지사 후보 “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OBS만 재송신료 못 받아” “프로그램 제작 어려움이 고스란히 시청자 피해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인천시장·경기지사 후보자들이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다. 인천·경기 지역 10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인 지역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후보들의 건의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방통위)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여야 4당의 인천시장 후보와 경기지사 후보 9명이 모두 참여했다. 인천시장 후보로는 박남춘(더불어민주당), 유정복(자유한국당), 문병호(바른미래당), 김응호(정의당) 후보가 건의문을 냈고,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남경필(자유한국당), 김영환(바른미래당), 이홍우(정의당), 홍성규(민중당)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OBS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1,600만 시도민들의 뜻을 모아 OBS 경인방송의 재송신료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지역 MBC, 지역 민방 등은 케이블과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콘텐츠 제공 대가인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OBS 관계자는 “OBS는 국내 11개 유료방송(KT올레, SKB, LGU+, Sky Life, CJ헬로, 티브로드, 딜라이브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송되고 있지만 국내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재송신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장과 경기지사 후보들은 “OBS는

그동안 계속해서 재송신료를 요구했지만, 거대통신사업자와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송출 중단’이나 ‘채널 이동’ 등의 압박을 가하며 재송신료 지불을 외면해왔다”며 OBS에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사례’나 ‘공동 거부 행위(담합)’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지역 지상파방송에만 재송신료를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OBS와 같은 지역 방송인 KNN(부산·경남민방)의 경우 현재 연간 50~60억 원의 재송신료를 받고 있다. 후보자들은 “재송신료는 방송사들이 콘텐츠 제작 등 시청자들을 위해 재투자하는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며 “OBS는 재송신료를 받지 못해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고스



©OBS '경인 지역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시도지사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좌) 민진영 경기민론 사무처장 (우)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란히 지역시청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ETRI, 美서 LDM 실시간 방송 시연 성공

“국내 기업의 UHD 방송 장비 시장 유리한 고지 선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은 5월 23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ATSC 정기총회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다채널 HD 기술’의 라이브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다채널 HD 기술은 ATSC 3.0 표준 기반 계층분할다중화(LDM) 기술과 스케일러블 영상압축(SHVC) 기술이 결합된 기술이다.

해당 기술을 방송 환경에 적용할 경우 주파수 효율을 30% 이상 개선할 수 있다. ETRI 측은 “지난달 참가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장비 전시회인 ‘국제 방송 장비 전시회(NAB 2018)’에서 미국 최대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 그룹(SBG)의 요청으로 이번 시연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TRI는 여러 차례 핵심 전송 기술의 시연을 해왔다. 기존 NAB 등에서의 시연은 방송 영상을 미리 저장해 두고 실내에서 송수신 결과를 보여줬다면, 이번 시연의 경우는 실제 방송국의 영상 송출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방송이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또한 이번 전시에는 ATSC 3.0의 시스템 표준 기술인 엠백 미디어 전송(MMT) 방식을 이용했고, 본 전시를 위해 삼성전자는 기존 UHD 방송에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HDR) 기술을 더해 사실감을 향상시킨 최신행 QLED TV를 통해 검증했다. ETRI는 이번 시연이 SBG의 스튜디오 영상을 ATSC 3.0 기반의 실시간 SHVC와 LDM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해 회의 장소인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안테나로 방송 영상을 수신하는 형태였다고 설명했다. 본 시연을 위해 연구진은 먼저 ATSC 3.0 국제 표준 기반의 송신 시스템을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SBG 본사에 구축했다. 이후 라이브 시연에서는 실시간 방송 채널을 통해 다채널 HD 기술(LDM/SHVC)을 적용한 상용 UHD-TV와 이동수신 단말에서 각각 다채널 고품질(FHD, 1080p)과 일반 화질(SD, 540p)의 영상 재생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이수인 ETRI 방송·미디어연구소장은 “미국 현지에서 우리 방송기술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 방송 장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국내의 UHD-TV 방송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기술용어

Google Duplex

Google은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열린 2018 Google I/O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Google Duplex’를 공개했다. 슌다르 피차이 Google CEO가 직접 소개한 Google Duplex는 AI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같은 자연스러운 억양과 말투로 현장에서 감탄을 자아냈다. 사용자의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사이에 헤어 컷트 약속을 잡아달라’는 명령에 따라 Google Duplex는 미용실에 전화했으며 12시에는 예약이 안 된다.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에 따라 예약 가능 시간이 다르다 등 다소 복잡한 상황에도 전혀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응대해 예약을 완료했다. 또한, 질문에 답하기 전 ‘Um’하고 약

간의 지연을 두거나 기다리라는 말에 ‘Mmm-hmm’이라고 답하는 등 단순히 반응하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 Google Duplex의 놀라운 점 중 하나는 대화의 복잡성, 모순성, 비체계성 속에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화 중 숫자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시간을 의미하는지 사람 수를 의미하는지 맥락을 파악하고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Google Duplex에 대한 감탄과 함께 인간과 구분이 불확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Google은 실제 상용화 단계에서는 정체를 사전에 밝힐 것이라고 답했으나, 규제와 심리적 거부감은 상용화까지 많은 어려움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숙희 sh45@kobeta.com

KBS·MBC 이사진 임기 만료 임박...신임 이사 선출은 어떻게?

국민 10명 중 7명 “공영방송 이사의 정당 추천 폐지해야

오는 8월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식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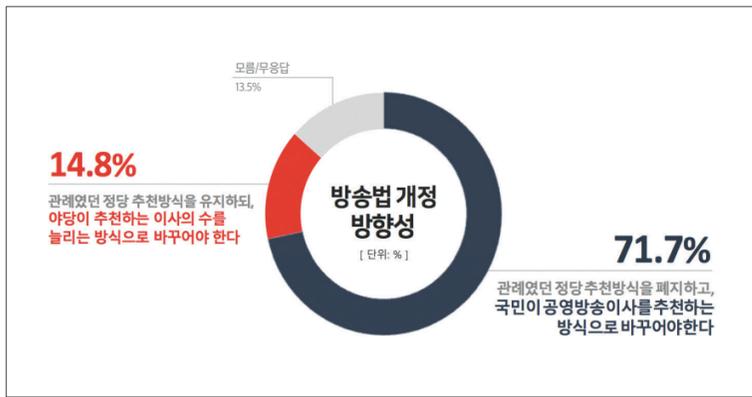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문진 이사회는 9명으로 방통위가 방송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 등을 고려해 선임하고 이 모든 과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된다.

문제는 현 방송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한다면 관행대로 국회 추천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KBS 이사회의 경우 여야 7:4, 방문진 여야 6:3 구조가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분부는 240호 노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MBC 본부는 “이대로 방치하면 8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또다시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여야 7:4, 6:3 추천 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출하는 구태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민이 직접 참여해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분들을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며 “여야가 담합하고 나눠 먹는 대의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속의 민주주의적 요소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 본부는 그 근거로 언론노조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진행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들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그동안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



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추천 방식을 선택한 응답자는 30대(85.3%)와 40대(77.9%)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77.5%)와 보수(84.6)에서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왔다.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국민이 직접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야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57.6%),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23.5), ‘기존 정당 추천

방식을 통해 구성된 이사회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16.6%) 등의 이유를 댔다.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유지하되 야당이 추천하는 이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은 1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선택한 응답자 중 44.1%는 ‘국민 추천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32.0%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이 의견은 자영업(42.9%) 계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MBC 본부 관계자는 “독일 ZDF 이사회는 노조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이사로 구성하고,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이사회는 직원 대표와 시청각최고위원회가 임명한 시청자 대표가 참여한다. BBC 이사회도 정치권 인사 대신 구성원 대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현장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SBS, UHD로 러시아 월드컵 생중계

“개막전과 한국전 포함한 모든 중계방송을 UHD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정상회담과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이슈에 묻혀 그 열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 방송 관계자는 “6월 14일 월드컵이 시작되면 ‘월드컵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분위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중계권을 가진 지상파 3사의 발걸음이 빨라지

고 있다”고 말했다.

첫 타자는 SBS다. SBS는 이번 월드컵 중계에 ATSC 3.0 규격이 제공하는 실감 방송 기술을 모두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SBS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 중계에 적용할 실감 방송 기술은 초고화질(UHD) 방송을 더욱 생생하게 만드는 HDR(High Dynamic

Range) 기능과 10채널 오디오로 경기장의 현장감을 그대로 안방으로 전달하는 실감 음향(MPEG-H) 기술이다.

먼저 SBS가 선보이는 UHD-HDR 실감 영상 기술은 하나의 화소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어두운색과 가장 밝은색의 범위(Dynamic Range)를 극대화시키는 기술로 그 사이에 더욱 많은 다양한 색을 구분해 표현하는 기술이다.

MPEG-H 기반의 실감 음향 기술은 기존의 5.1 채널 음향에 음원의 높낮이(Height) 정보까지 구분해 4개 채널을 추가한 것(5.1.4)으로 시청자들은 마치 축구 경기장 안에서

관람하는 느낌의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는 중계를 시청하면서 박지성, 배성재 콤비의 한국어 해설뿐만 아니라 FIFA가 직접 제공하는 영어 해설과 경기장 장내 아나운서의 멘트가 포함된 현장음까지 시청자가 직접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객체(Object) 기반 오디오 생중계가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SBS는 러시아 월드컵 기간 개막전과 한국전을 포함한 모든 중계방송을 ATSC 3.0 규격에 따른 UHD 실감 방송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 기간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그리고 평창, 강릉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 중 2017년

이후에 출시된 UHD TV를 보유한 가정은 UHF 안테나(470~806MHz)를 설치하거나 또는 UHD가 지원되는 공청망에 연결해 UHD 방송을 볼 수 있다. 다만 보유한 UHD TV가 실감 영상(HDR)과 실감 음향(MPEG-H) 그리고 객체 기반 오디오 등 기능을 지원하는 모델인지는 제품사설설명서 또는 제조사를 통해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SBS는 “러시아 월드컵 이후로도 다양한 장르에 걸쳐 UHD 실감 콘텐츠를 제작, 방송해 시청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범 jnb1001@nate.com

방통위 ‘직권조정’ 다시 도입하나?

방송협회 “직권조정 도입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별도의 신고 없이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5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및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 신청

이 있을 경우에만 조정 절차를 실시할 수 있어 방송 송출 중단과 같은 시정권 침해가 있어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했다”며 “방송법을 개정해 직권으로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권조정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 등의 문제가 예상될 경우 방통위가 직권으로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당사자 신청 없이도 개시가 가능하다.

방통위가 직권조정 도입 등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직권조정 △재제제도 △방송 유지 및 재계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 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직권조정 및 재제제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이하 방협회)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직권조정 도입과 권한 강화가 합리적인 정책인지 전면 재고를 바란다”며 직권조정 도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협회는 △재송신 분쟁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사업자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재송신 대가 지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시정 명령과 조정제도라는 충분한 규제 권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유지재계명령권을 신설했으나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블랙아웃과 같은 분쟁은 벌어지지 않았음 △시급한 방송 정책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은 시기

상 부적절함 등의 이유로 근거로 직권조정 도입 시도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방협회 관계자는 “지상파는 불필요한 악성 규제와 비대칭 차별 규제로 콘텐츠 경쟁력을 상실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가 진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한류 콘텐츠를 생산해 온 지상파 사업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송 사업자 간 협상에서 지상파 콘텐츠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고, 지상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을 지금 당장 논의 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남북평화시대

한반도에 찾아오는 봄, 언론의 역할은 교류·협력?

“왜, 무엇을 교류·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우선해야”



최근 남북 관계가 급진적 개선을 맞으면서 평양지국 개설 등 언론의 교류·협력을 강조하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선은 ‘왜, 무엇을’ 교류·협력할 것인지 알아야 한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언론학회와 연합뉴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한 남북 언론 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6월 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창현 국민대 교수와 이은영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소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 관련 방송으로 진행된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언론의 영향력과 역할을 제시

했다. 이번에 시행한 실험 연구는 대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상회담 방송을 보기 전과 후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봤다.

이 실험 연구에 따르면 정상회담 방송을 보기 전에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긍정적 태도가 19.8% 부정적 태도가 66.1%였으나 방송을 본 후에는 긍정적 태도가 57.3%로 큰 변화가 있었다. 대상에 대한 태도를 서술적으로 표현한 정성 평가에서도 방송을 보기 전에는 ‘핵 실험’, ‘부정적인’, ‘강압적’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됐으나 방송을 본 후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돼 태도의 변화를 보였다.

조사를 바탕으로 이창현 교수는 “결과를 살펴봤을 때 미디어의 역할과 영향은 인정하나 남북문제에 있어 보다 냉정한 분석과 태도가 요구되며 새로운 저널리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욱 서울여대 교수는 이번 실험 연구에 대해 “방송의 힘인지 이벤트의 힘인지 구분 짓기 힘들다”며 또한 “김

정은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 알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던 점과 소스가 가지는 임팩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하용 동국대 교수 역시 “이번 정상회담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대부분 기성세대라고 보며 이벤트 자체의 영향력이 보도의 영향력은 아니라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 방식을 꼽았다. 단순 중계를 했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키 이벤트가 발생하면 추후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다른 정상회담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번 정상회담이 가지는 의미 등인데 그런 보도가 없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발언이 탁구 치듯 중계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창현 교수는 “교류·협력은 무조건 옳은 것이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언론이 왜, 무엇을 교류·협력할 것인지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고 앞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 언론에 요구되는 바를 지적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KBS 평양지국 설치 필요”

한국방송학회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5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공동 주최한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한 방송 교류와 협력 세미나에 참석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남북 공감대 형성에 방송만큼 효과적인 매체는 없다”며 남북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제작, 현업 방송인 교류 등의 방안을 거론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는 “방송은 남북 상호 교류 협력의 매개인 동시에 사회통합을 시키는 수단”이라며 독일의 공영방송이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방송 중인 통일 및 북한 관련 TV 프로그램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홍문기 한세대 교수 역시 이 같은 의

견에 공감하며 “KBS는 국가기간방송인 만큼 평양지국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KBS가 먼저 평양지국을 실험적으로 설치한 뒤 점진적으로 타 방송사와 언론매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KBS가 외신이나 탈북자 등 제3자 정보에 의존해 북한 뉴스를 보도할 경우 추측성 보도와 오보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남북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겪을 수 있다. 또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KBS가 평양지국을 개설해 장

기적으로 일관된 ‘통일 메시지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 지국을 설치한 언론사는 CCTV, 신화사, 인민일보, 이타르타스통신, AP, APTN, 교도통신, AFP 통신 등이 있다. 홍 교수는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평양에 지국을 설치한 상황에서 정작 당사국인 한국만 특파원이나 주재원을 둘 수 없어 ‘정보 주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KBS의 평양지국 설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숙희 sh45@kobeta.com

현실 반영 못하는 '넓은' 시청률 조사

“기존 방식으로는 시청 행태 변화 담을 수 없어”

스마트폰이 TV를 제치고 일상생활 필수 매체로 자리 잡은 지도 몇 년이 지났지만 국내 시청률 조사는 여전히 TV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매년 매체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시청 행태의 변화를 추적분석해 내놓는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사람은 5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TV를 선택한 사람은 38.1%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간점유율 측면에서도 스마트폰이 TV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TV 이용 시간은 2013년 3시간 3분에서 2017년 2시간 28분으로 최근 6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

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용자들이 TV와 같은 전통 미디어에서 스마트폰이나 SNS 등의 매체로 대거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고령층이 있기 때문에) TV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지만 낮은 연령층으로 갈수록 TV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TV 수상이 앞을 떠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현 시청률 조사는 이러한 미디어 시청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닐슨코리아와 TNMS에서 실시하는 시청률 조사는 전국 3,000가구 이상을 확보해, 각 가구의 TV에 피플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하나 해당 시청률 조사는 1인 가구 시청률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시청률 등을 반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존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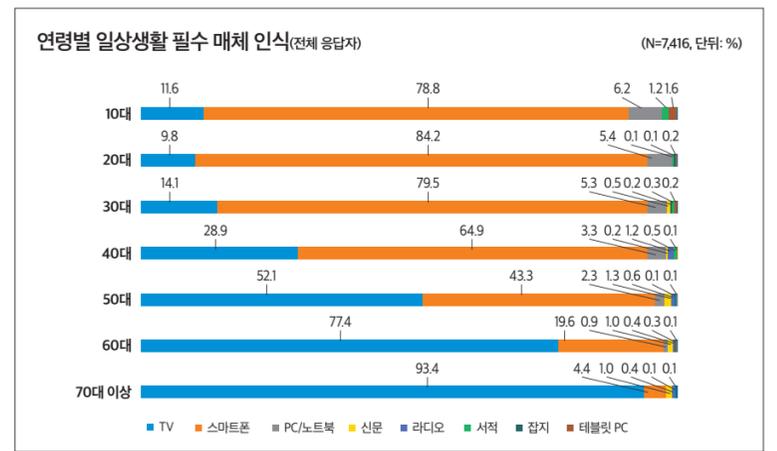
완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방송 위에서도 몇 년 전부터 통합시청률을 도입하겠다고 이야기해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통합시청률은 방통위의 해묵은 과제 중 하나로 기존의 TV 시청률뿐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PC, VOD 등 모든 유형의 시청 형태를 아우르는 시청률을 말한다.

통합시청률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방송사 등 매체에서는 개별적으로 종합 시청률 측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KBS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코코파이'도 그중 하나다. '코코파이(Korea Content Program Index for Evaluation, KOCO PIE)'는 TV 안팎의 시청 행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PIE-TV와 PIE-nonTV)로 구성된다. 먼저 PIE-TV는 TV 내 통합시청자수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본방송, 재방송, 유통채널, TV-VOD의 시청자수를 모두 합해 계산하고, PIE-nonTV는 TV 밖 프로그램 이용 행위를 측정

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STVF는 중국 최대의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으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상하이시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국영방송사 CCTV와 상하이 미디어 그룹(SMG), 광둥, 후난, 저장성, 사천 등 각 지역의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은 물론 소니픽처스, 후지TV 등 주요 콘텐츠 기업 바 이어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공동관에는 KBS, MBC, SBS, EBS, CJ E&M, JTBC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총 15개의 국내 미디어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은



하는 지표로 뉴스, 커뮤니티, SNS, 동영상의 네 가지 영역에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시청률 조사를 보완할 자료로 ‘도량형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다”며 “방통위와 코바코가 협업해 올 1월 오픈한 ‘방송 콘텐츠 가치 정보 분석 시스템(Response About Content On the internet, RACOD)’은 시청률로 측정하기 어려운 시청자의 온라

인 반응을 수치화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지수 미네소타대학교 교수와 김정 경기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광고-미디어-콘텐츠 육성을 위한 미디어 도량형 도입과 방송통신, 인쇄, 인터넷, 옥외, 크로스미디어 관련 미디어 이용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 공적인 비영리기관으로 ‘미디어시청측정위원회’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백선하 baek@kobeta.com

한류 콘텐츠 중국 수출길 다시 열릴까?

한콘진, 6월 12~14일 '2018 상하이 국제TV 페스티벌' 참가

한한령(韓韓令)은 한류 수입 제한령으로 얼어붙었던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진출이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2018 상하이 국제TV 페스티벌(2018 Shanghai International Film&TV Festival)' TV 마켓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콘진의 이번 STVF 한국공동관 운영은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중국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지 가능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콘진 관계자는 “경색된 한-중 관계의 영향으로 지난해 STVF에 한국공동관이 운영되지 못했고, 중국 내 한국 드라마의 수입 쿼터가 막히면서 2016년 하반기 이후 수출 실적

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STVF는 중국 최대의 방송 영상 콘텐츠 마켓으로,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상하이시가 주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국영방송사 CCTV와 상하이 미디어 그룹(SMG), 광둥, 후난, 저장성, 사천 등 각 지역의 방송사와 미디어 기업은 물론 소니픽처스, 후지TV 등 주요 콘텐츠 기업 바 이어 약 3,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공동관에는 KBS, MBC, SBS, EBS, CJ E&M, JTBC 등 주요 방송사를 비롯해 총 15개의 국내 미디어 기업이 참가한다. 이들은

드라마 <너도 인간이니>, <이리와 안아줘>, <훈남정음>, <무법변호사>, <미스 함무라비>, <리치맨> 등과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뽀빠이>, <숲속의 작은 집>,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다큐멘터리 <디 오리진>, <더 본즈>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자명 한국방송수출협회회장(SBS콘텐츠 허브 해외사업팀장)은 “이번 STVF 참가를 앞두고 참가 기업들이 중국 바이어와의 상담, 미팅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등 기대가 크다”며 “대형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주요 미디어들과의 계약이 성사되고, 빠른 시간 안에 한국 방

송 프로그램 수입이 허용된다면 중국 내 방송 영상 콘텐츠 한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석 한콘진 방송본부장은 “국내 콘텐츠 기업들에게 중국 시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한국공동관을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여전히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참가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층 정보 제공,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미팅 주선, 전문 통역원 배치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범 jinb1001@nate.com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거 심의 제재와 형평성·제작 시스템 개선 약속 고려해 '과징금' 제외

세월호 참사를 조롱·희화화해 논란을 일으킨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방송 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5월 2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5월 5일자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제2항, 제25조(윤리성) 제1항, 그리고 제27조(품위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이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 특보 화면을 편집 사용해 국가적 재난을 희화화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공분을 샀다. 또, '어묵'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키워드로 사용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이라는 의혹을 낳았다.

사고 이후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해 제작 전 과정을 확인했으며, 지난달 16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프로그램 조연출에 의해 비롯한 문제점을 밝혔다. 위원회는 “조연출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영자가 매니저와 어묵을 먹는 장면에서 뉴스 속보처럼 전달하려고 했을 뿐 세월호 희생자를 희화화하는 다른 의도는 없었다. 특정 사이트에서 조롱 의도로 사용한다는 걸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연출과 담당 PD,

CP, 예능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한 상황이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MBC 측의 요청에 따라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수 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다수 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으나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 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 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과 MBC의 경우 제작 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 수준의 제재 없이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3인)이 있었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며, 법정 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전지적 참견 시점>은 연출진을 교체



해 안수영 PD를 새로이 맞이하고, 오는 30일 약 2달 만에 프로그램 재개를 준비 중이다. 이번 일로 방송 녹화에 거부 의사를 밝힌 개그우먼 이영자는 제작진의 설득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전승희 sh45@kobeta.com

단신

과기정통부, 방송 콘텐츠 학점 연계 과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생들에게 방송 분야 실무 교육과 직무 체험을 통한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 콘텐츠 학점 연계 과정'을 신설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공고를 통해 지원한 총 5개 대학 중 광운대학교 등 3개 학교(광운대, 수원대, 차의과대)를 참여 대학으로 선정해 오는 7-8월 여름 방학 기간 중 학교별 총 60여 시간의 실무 위주 방송 콘텐츠 특화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미래 방송 시장을 이끌어 나갈 신진 인력 발굴 육성을 위해 방송제작기술과 함께, 웹모바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현업 전문가 강의와 현장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해당 대학에서는 과정 이수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학점 연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OTT 등을 통해 유통해 보는 실습뿐 아니라, 지금까지 도제식으로 이뤄져 왔던 방송 특수 촬영, 음향, 조명 등 분야의 실무 체험 교육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방송 예비 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8월 방송영상 분야 취업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제5회 방송 미디어 직업체험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방송사 및 제작사 등과 취업 희망자를 연결해 교육하는 '산업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KBS 진실과미래위원회 6월 5일 출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를 담당할 특별위원회가 6월 5일 출범했다.

KBS 이사회는 이날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실미래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진실미래위는 정필모 KBS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외부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언론, 인권, 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할 예정이다.

진실미래위 산하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이 설치된다. 실무추진단은 사전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후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게 된다.

위원회는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

해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생긴 피해의 원상회복,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규 개정이나 제도 보완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강민정 mjkgang@kobeta.com

서울시, 상암에 전국 최초 '미디어 노동자 쉼터' 마련

비정규직, 프리랜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디어 노동자'들이 휴식은 물론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작업도 하고, 노동법과 관련된 교육부터 상담, 법적 구제까지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MBC와 YTN 등 방송사를 포함해 100여 개 미디어 기업이 밀집해 있는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휴(休)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이하 상암쉼터)'를 조성해 5월 31일 개소했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에 위치한 쉼터는 서울시 노동자 쉼터 4호이자 전국 최초 미디어 노동자 전용 공간이다.

상암쉼터는 △카페처럼 노트북을 들고 와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방송작가 등 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고 밤샘 작업이 많은 업무 여건을 고려해 '여성전용휴게

실' 2개 조성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노동행위나 처우에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미디어 노동자들에게 노동 상담부터 법적 구제까지 권익 개선 지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산하 tbs교통방송의 비정규직 272명을 올해부터 단계적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데 이어 쪽대분과 무리한 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 낮은 보수, 차별적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들의 권익 개선을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 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의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외부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도 사전 수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암쉼터는 주중 9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향후 이용 시간 분석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운영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민서진 seojin@kobeta.com



‘KOBA 2018’ 뜨거운 호응 속 폐막

제28회 국제방송·음향·조명기전전시회(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KOBA 2018)가 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5월 18일 폐막했다. ‘미디어, 모든 것을 연결하다!(Media, Connected Everywhere!)’라는 주제로 진행된 KOBA 2018은 5G,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이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KOBA 2018 첫날 개최된 월드미디어포럼(World Media Forum)과 16일과 17일에 걸쳐 진행된 국제방송 기술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AI와 IoT, 블록체인 등의 이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나 전시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초고화질(UHD) 방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인 미디어 시장을 겨냥한 장비와 솔루션이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한국이앤엑스도 이 같은 변화를 적용해 ‘1인 방송 미디어 특별관’을 마련했다. 실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관람객들에게 촬영 및 제작 기법 등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시회 기간 내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솔아(27) 씨는 “친구들과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KOBA에 참가하게 됐다”며 “방송 장비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고 막연했는데 생각보다

KOBA가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BS에서 근무했던 한용술(65) 씨는 “1인 미디어 체험관도 눈에 띄고, LED 장비에 중국 업체가 많이 진출한 것을 보면서 요즘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며 “다만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많은 경기가 8K로 제작된다고 해 8K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4K 관련 기술이어서 조금 아쉬웠다”고 말했다.

“방송과 미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월드미디어포럼도 참가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WMF는 ‘방송과 미디어, 모든 것이 연결되다!’를 주제로 UHD 이후 광대역 무선인터넷과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디어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첫 강연자로는 영국 Digital UK에서 기술 책임을 맡고 있는 James Jackson이 나섰다. James Jackson은 ‘The Evolution of Connected Media’를 주제로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 미디어 기업들이 더 큰 미디어 그룹에 인수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이기고 확고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 영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협업하기로 하고, Connected TV, On Demand, 무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업을 하고 있지만 방송사들 간 직접적 경쟁도 벌어지고 있

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강연자들이 모두 참여한 Wrap-Up 세션에서는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산업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미디어 산업이 ICT와 만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또 그 과정에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는 해킹이나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각자 생각하는 답을 내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서연 씨는 “방송기술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KOBA와 WMF는 매년 참석하고 있다”며 “기대했던 대로 유익했고 특히 SK텔레콤 이종민 강사님의 강의가 현실적이라 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KOBA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 성황리에 열려

KOBA 역사와 함께해온 국제방송기술컨퍼런스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첫날인 5월 16일에는 ‘ATSC 3.0 Tech Insight’라는 키워드를 내건 특별 무료 세션을 마련했다. UHDTV 전송 기술을 비롯해 ATSC 3.0 표준의 IP와 이동방송 서비스 등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높이는 강의부터 시작해 평창 동계올림픽 UHD 국제 신호 제작기, 러시아 월드컵 HDR 영상 송출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돼 시작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ATSC 3.0 Tech Insight에 참석한 황승유(28) 씨는 “방송기술직을 준비하고 있어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기본부터 시작해 심도 있는 강의까지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방송기술직이 어떤 직업인지 궁금한 새내기 1학년,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있는 2학년,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3학년, 취업 노하우를 알고 싶은 취업 준비생 4학년, 취업 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유예생과 졸업생 등 방송기술직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Pre-Engineer’ 특별 무료 세션도 ATSC 3.0 Tech Insight 세션 못지않게 뜨거운 반응이었다. 특히 올해는 오강선 KBS 2TV 국장급 PD가 강사로 참여해 방송기술의 발전이 프로그램 제작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설명해 방송기술직에 대한 이해를 더 높였다.

이외에도 국내 최대 VFX(시각특수효과) 사업부, DI(색보정)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 텍스터스튜디오에서 강사로 나서 최근 더 중요시되고 있는 후반 작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 금창섭 빅픽처랩 대표는 올해 뜨거운 감자인 블록체인 기술이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이전 컨퍼런스에서 볼 수 없었던 ICT 기술 융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리 백선하 baek@kobeta.com 전속희 sh45@kobeta.com





눈앞에 다가온 노동시간 단축, 무엇이 핵심인가?

-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노무사

2018년 2월 28일 방송업계는 물론 노동계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조항들이 일부 개정됐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연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해독은 과제 중 하나다. 논란은 지속돼 왔으나 업계에서 그 누구도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르르면 내달 1일부터 '휴일을 포함해 1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는' 개정 근기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여기에 제작 현장에서 무한정 연장근로가 가능했던 방송업종은 이번 개정에서 근기법 제 59조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어느 업종보다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눈앞에 다가온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 달라진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혼선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방안이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1.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 평일, 주말 상관없이 1주(7일)간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계가 들끓고 있지만 이번 개정 근기법의 핵심은 매우 간명하다. 기존법에서 명시하지 않았던 '1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1주일(7일)의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이다.

주 40시간제가 시행된 것은 14년 전인 2004년 7월인데 '주 52시간제'는 갑자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여기서부터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우선 근기법은 원래부터 아래와 같이 1일, 1주 근로시간의 한도와 1주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근기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최대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견이 없었으나 제53조의 '1주간 최대 연장시간'을 계산할 때 '1주'를 며칠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존재했다. 상식적으로 '1주일'이라면 '7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일근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1주를 7일이 아닌,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국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개정 근기법은 제 2조(정의)에서 '1주간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을 법률로써 폐기하고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존 노동부 해석대로라면 법을 위반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포함해 일을 시킬 수 있는 최대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토요일 8시간+일요일 8시간=68시간'이었으며, 경우에 따라 휴일이 많이 포함된 주라면 68시간을 초과한 노동까지 가능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누가 뭐래도 주 최장 52시간을 넘긴 노동은 위법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1주 기준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래 현장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통해 새로운 법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보자.

[질문] 제작 업무가 몰리는 특정 주일 초반부에 3일만 나와서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나흘은 쉬라고 합니다. 주일 7일간 노동시간이 총 48시간이니 52시간 위반은 아니죠?

[답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기법상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니, 근무일 3일 동안 매일 16시간씩 일했다면 매일 8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합치면 총 24시간으로 1주당 연장근로 제한인 12시간을 넘기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에 3일만 나와서 일한다면 1주 기준근로시간 최대 24시간(1일 8시간 X 3일)+ 연장근로 12시간=36시간까지만 노동이 가능합니다.

[질문] 방송업의 특성상 밤샘 작업이 자주 있습니다. 월요일에 연속해서 20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 쉬 뒤 목요일에 다시 20시간 근무를 한다면 1주일간 총 40시간을 일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1주일 최장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이미 월요일에 1일 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에 더해 12시간을 일했으니 1주일 최장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채워졌습니다. 따라서 목요일에는 8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52시간 노동과 관련한 시

간 계산 시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은 무조건 1주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에서 제하고, 12시간을 전부 사용하는 순간 해당 1주일 내 연장근로는 더 시킬 수 없다. 1일 8시간, 1주 연장 12시간 계산 시 실제로 출근해 일한 날이 평일인지, 휴일인지는 상관없다는 점도 특히 유념하자.

2. 방송업계 1주 최장근로 52시간 제한은 언제부터?

정작 궁금한 것은 '방송업계는 언제부터 이러한 주 52시간 노동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인지, 내년 7월 1일부터인지 등을 둘러싸고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1주 7일 정의 규정, 즉 주 최장 52시간 근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사업장 규모별로 상이하고, 방송업종의 경우 근기법 제59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시기와 주 최장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세히 살펴보면, 기존 근기법 제59조상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법 제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해 부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 근기법에서 기존 특례업종에 해당했던 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축소됐고, 방송업종도 제외업종에 포함됐다. 해당 조항의 시행 시점은 올해 7월 1일부터이므로, 7월 이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시키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방송업종이 특례업종에서 풀려났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1주 최장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은 '특례업종에서 빠져게 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시행시기가 1년 더 늦춰져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00인 이상 방송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52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을 따르면 내년 7월 전까지는 개정된 1주 52시간 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1주 68시간까지는 근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공개 변론을 진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의 결론에 따라 내년 7월 이전이라도 1주 최장 52시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해당 사건은 1주일을 휴일을 포함해 7일로 보고, 휴일 중복 할증(1주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출근해 근로했을 경우 해당 휴일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이

로 중복해 가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1주가 7일이라는 이 판결이 곧 확정될 경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태도를 넘어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주 52시간 체제를 강고히 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은 얼마나 받나?

이번 개정 근기법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기준도 신설(제56조 제2항)됐다.

-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2번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출근한 경우 해당 휴일근로가 연장인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해 중복할증 지급을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고, 현재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인데, 이를 이번 개정 근기법에서 입법을 통해 정리한 셈이다. 다른 개정 조항들이 대부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달리 이 조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되므로,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해 8시간을 근무한 뒤, 다음날인 휴일인 일요일에 나와서 4시간을 근무할 경우 해당 일요일의 4시간 근무에 대해 '토요일을 포함해 휴일근로를 계산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문구 해석상 해당 조항의 휴일근로는 1일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종전의 노동부 해석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장시간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방송 제작 환경을 이유로 위와 같은 근기법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사 간 별도 협약을 통해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왔다. 방송사들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혁명적 변화에 맞춰 장시간 초과 노동과 노동자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불법적 시간외수당 협약을 폐기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해 법적 기준에 맞는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4. 예상되는 변화와 나아갈 방향

근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방송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된 질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제269호 노보

은 "과연 개정법대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였다. '방송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특례업종에 묶여 어쩔 수 없다'는 암묵적 동의 아래 그동안 관행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살인적 노동 강도를 감내했던 방송 노동자들로서는 당연한 질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담은 개정 근기법 시행 시점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방송업종만 이를 피해갈 수 없다. 그동안 장시간 노동과 관련해 누적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관짜기에 나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업무 시스템과 제작 환경 등을 그대로 고수한 채 주 52시간 노동을 실현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번 노동시간 단축 개정 근기법의 취지는 매우 분명하다. 저렴한 노동의 대가 지급과 왜곡된 임금 구조로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장시간 노동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누구도 가만 적 없는 길이라도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

*본 글은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노보에 기고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본 기고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KOBA 리뷰

칼럼



오건식
SBS 인사팀부 국장

하지 않게 된 지금 관람객의 신분으로 KOBA를 찾는 기분은 좀 야릇하다. 의무감으로 꼭 갈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전시장에 눈에 익은 도우미도 없는데 이게 웬 사서 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직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자는 도서관에서 근무하시는 사서라고 생각한다. 사서 고생.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전시장 입구에 도착.

올해도 KOBA 전시의 대세는 UHD TV였다. HDR은 그 장점을 보여주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기본 기능화됐음을 보여줬다. UHD TV의 Full HD급 Mobile 방송은 기술적으로는 완성 단계라고 할 수 있다. UHD TV Workflow가 12G인가 IP인가 하는 점은 올해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다. 이는 이미 4~5년 전부터 NAB나 IBC를 비롯한 방송 장비 전시회의 뜨거운 주제였다. 궁극적으로는 IP로 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KOBA에서도 전체적인 느낌은 아직 IP가 12G에 비해서 힘이 부치는 것 같다. 몇 년째 똑같은 화두인 '12G vs. IP'를 제시하지만, 내년 전시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번 재탕 삼탕을 할 것 같다. 수년째 똑같은 '빼끼'에 당하는 느낌.

전시품 중에는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기기나 서비스들이 다수 출품돼 있었다. 예를 들어 K 부분의 뉴스 분석 시스템은 전 세계의 보도 콘텐츠를 빅데이터화하고 AI를 통해 뉴스의 비중을 정해주는 재미진 서비스였다. 이를 활용하면 뉴스 제작 부문에서 최소한 낙종의 비극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도 방송 장비의 영역으로 넘어도 되는가 하는 분야가 많이 선보였다. 마치 Water Screen같이 투명한 화면에 영상을 보여주는 투명 LED 전광판 장비가 대거 등장했다. 명동의 L 백화점 건물 외벽에 디스플레이 돼있는 것과 유사한 영상 장비로, 오프라인의 증강현실(AR) 같은 기능을 한

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이벤트성의 방송용 세트에 활용되면 좋을 것 같은 서비스다. 그리고 Hyper Vision은 이미 국내외 광고 분야에서 유행을 선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방송 제작에도 적용될 것 같다. 꼭 해당 업체 관계자를 필자가 잘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인 S 전자도 Portable SSD를 가지고 전시 참여를 한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그리고 해당 전시관에서 KOBA 기간에 세 일을 하는 점은 더욱 흥미로웠다. 마치 일부 참여 중소기업이 전시회 기간 중에 전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처럼. 하지만 예를 들어 14만 원인 SSD를 KOBA 2018 특가라고 하면서 관람객에게 12만9천 원에 파는 것이 글로벌 캡 울트라 기업인 S 전자가 할 Stance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들었다. 요사이 유행어 중의 하나가 '통 크게'인데, S 전자가 생각보다는 어려운 것 같다.

이번 KOBA에서 역점을 둔 전시 아이템인 1인 방송 미디어 특관관은 관심을 가지고 참관할 계획이었으나 지인을 만나서 신변잡기 이야기를 생각보다 좀 길게 하느라 못 가본 것이 매우 아쉽다. 필자는 못 가본 것은 못 가봤다고 진술하게 이야기하는 담백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전시장을 나서면서 전반적으로 KOBA는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AI를 접목한 서비스 전시 등은 KOBA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CES가 자동차를 품은 것처럼. 이 점에서 KOBA를 주관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전시 업체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꾸벅~. 하지만 미래에는 트렌드 전시도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KOBA를 기획해주시기 바란다. 트렌드만 생각하면 IT 관련 전시회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인지 실제로 주위에 KOBA에 참석하지 않는 방송기술 엔지니어들이 늘고 있다. KOBA가 스토리가 풍부한 전시회라면 전시장에 가면서 '사서 고생'이란 느낌은 없을 것이다.

사설

남북 교류·협력은 문화 동질감 회복부터

세기의 관심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개인적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70여 년 이상 단절과 갈등 일변도였던 남북 관계가 화합과 통합의 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미 국내에서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기업에서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구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6월 7일 북한의 동의하에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의 정회원국 가입 등이 구체화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해빙 분위기를 틈타 국내 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급진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각자의 체제를 유지한 상황 속에서 예술, 체육, 문화 행사 등을 통해 남북 관계인식차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고 민족 간 동질감 회복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많은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서 보이듯 남북한 간 언어와 문화적 차이는 매우 크며, 이런 인식과 소통 능력차를 극복하지 않고 경제 교류와 개방을 추진한다면 상호 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칫 갈등과 분란으로 비화할 소지도 많

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문화적언어적 동질감 회복 정책 우선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방탄소년단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젊은 시청자를 하나로 모은 것처럼 방송·미디어는 생각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 공감대와 소속감을 짧은 시간 내 형성하기에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동시 전파가 가능한 지상파 TV는 효율과 효과에서 가장 실용적이다.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 콘텐츠 교환 시스템 구축과 기술 교류를,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방송 채널 교차 송출과 방송 표준 일치 등의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클 것이다.

지난 70년간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저평가되고 경제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던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큰 기회다. 북한이 스스로 개혁하고 민족적·문화적·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점진적 실사구시 정책과 국내 각종 주체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남북통일의 기초는 민족 간 공통된 인식과 소통 환경 구축이 밑바탕 돼야 하며, 그 중심인 문화 공간대 형성을 위한 방송 인프라 조기 구축 계획 마련을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다.

방송기술저널 창간 | 2003년 5월 20일

발행인 | 박종석
편집주간 | 박재현
편집위원 | 허슬기, 김지옥, 양창주, 이용학, 유의정
취재기자 | 백선하, 이진범, 강민정, 민서진, 전숙희
인쇄인 | SJC성전

주소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0층
전화 | 02-3219-5637
트위터 | @kobetajournal
페이스북 | @kobetajournal
홈페이지 | journal.kobeta.com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391

기사제보 광고문의 02-3219-5637 / kobetajournal@daum.net

[방송기술 기초(A to Z)] 교육 안내



교육 커리큘럼

2018년 6월 교육 과정

1. 교육 목적

- 입사 3년차 미만의 방송기술인을 대상으로 방송기술 전반에 대한 기초교육을 통한 업무 이해도 제고 및 직무 능력 향상 도모
- NPS 구조 소개 및 이에 적용되는 IT 기술의 기본적인 이해 증진
- 방송 영상신호의 기초 이해 및 방송 영상장비 이해 및 활용
- 방송 편집 기술에 대한 개론 교육
- 프로그램별 방송 조명 기초 이해
- 올림픽 국제 신호 제작 및 아이스하키 UHD 국제 신호 제작 이해
- 방송 음향의 실질적인 제작 과정을 통한 전체적인 흐름 이해
-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및 송신계통 이해를 통한 전송 기술 이해

2. 교육 일정

- **교육 일정** : 2018.06.27(수) ~ 06.29(금), 총 3일
- **교육 대상** : 지상파 방송기술인 15명
- ※ 2016년 1월 1일 이후 방송사 입사자에 한하여 수강 가능
- **교육 장소** :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소재)

3. 접수 방법

- 6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edu.kobeta.com)를 통한 선착순 접수

4. 기타

- **교육비** : 무료
- **담당자** : 강민정 과장, 민서진 대리
- **문의사항** : 02-3219-5640~1

일정	시간	단위	강사	교육장소	교육내용
1일차 06/27 (수)	13:40~14:00	20분	방송기술교육원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목동 소재)	• 교육 사업, 일정 및 공지사항 안내
	14:00~16:00	2시간	이택재 KBS 기술지원부 부장		• 방송기술 개괄
	16:00~18:00	2시간	나현철 YTN IT시스템 사원		• YTN NPS와 적용 기술 - YTN NPS 소개, 네트워크 기술 및 보안 • 방송 관련 IT 기술 - 영상 압축 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2일차 06/28 (목)	10:00~12:00	2시간	최기창 EBS 영상기술부 차장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목동 소재)	• 방송 영상신호의 기초 - 아날로그, SD, HD 신호이해, 신호 측정 및 전송 오류 • 방송 영상장비 종류 - VMU 원리 및 활용, Camera 원리 및 활용, 라우터, VDA 등 기타 장비
	12:00~13:30	1시간 30분	중식		중식
	13:30~15:30	2시간	나종진 SBS 편집기술팀 부장		• 편집기술 개요 - camera, codec, NLE, DAW, DI, Mastering • 후반작업 워크플로우 - 워크플로우의 변화, 교양예능, 드라마의 후반작업, UHD 후반작업
3일차 06/29 (금)	15:30~17:30	2시간	나재희 MBC 제작기술국 영상기술부 조명감독	한국방송회관 10층 방송기술교육원 강의실 (서울 목동 소재)	• 방송 조명 맛보기 - 프로그램 맛보기, 조명 맛보기, 방송환경 맛보기 • 방송 조명 요리하기 - 쇼, 드라마, 청초 결들이기
	10:00~12:00	2시간	이석진 MBC 제작기술국 중계부 차장		•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신호 제작 이해 • 평창올림픽 MBC HD 중계 제작 기술 소개
	12:00~13:30	1시간 30분	중식		중식
	13:30~15:30	2시간	양정화 KBS TV기술국 사원		• 소리 - 개념 및 정의, 기본 이론, 음향의 역할 • 방송 음향 - 종류와 특징, 역할, 제작기술
	15:30~17:30	2시간	최석준 KBS 남산송신센터 팀장		• 송출계통 이해 - Baseband 신호전송, 송출 신호전송 시스템 • 송신계통 이해 - M/W 신호전송, 송신 신호전송 시스템
17:00~17:10	10분	방송기술교육원		• 설문조사 및 종료	

※ 상기 교육 일정 및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KOBA 2019



29회 국제방송 · 음향 · 조명기기전
 29th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ING EQUIPMENT SHOW

2019.05.22-25
 COEX, SEOUL

www.kobashow.com

주 최 한국이앤엑스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후원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방송통신위원회 · 서울특별시 · KBS · MBC · SBS · EBS · OBS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음향학회 · 한국음향예술인협회

특별후원 CBS · 아리랑국제방송 · tbs

문의 한국이앤엑스 02-551-0102 / koba@kobashow.com

